

해남, 최대 규모 국립기관 유치...지역발전 기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경제유발 4,600억...취업 효과 2,200여명 전망

해남군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 국가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은 사업비 4,0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사

업비는 전액 국비로, 오는 2025년까지 해남 삼산면 일원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대규모 국가기관을 유치하게 되면서 해남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단일사업으로 4,000억원이 넘는 기관 유치는 역대 처음으로,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위상 제고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3ha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기술수요 발굴과 정책화, 지역센터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부와 기후변화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후데이터부, 미래 기

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갖춘 첨단 인프라부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함께 해남군의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연구센터 등 연계·후방시설 구축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3,56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67억원 등 직간접 경제유발효과는 물론 관련 취업자도 2,285명에 이를 전망이다. 땅끝해남이 기후변화대응의 국가적 과제를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 점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농업은 기후의존성이 높아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2040년 대에는 사과의 70%, 고랭지배추 90% 이상 재배지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대표 식량작물인 쌀 생산량 또한 13.7% 감소할 전망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최대 농업군이자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문인 해남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정책과 연구,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해남에 신설되는 센터는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본부로서 전국 도 단위 농업기술원을 지역센터로 활용해 기후와 밀접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해남군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내년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자칫 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라는 대규모 국가기관 유치로 해남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남이 땅끝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진도군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AI-IoT기반(인공지능-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진도군 제공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속도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한달간 시범운영

해남 2030 푸드플랜의 핵심 사업인 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공됨에 따라 해남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 구교리에 들어선 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지면적 2,078㎡, 연면적 991㎡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직매장, 2층에는 사무실과 농가 교육장, 식생활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직매장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 10개소 2,216세대가 밀집해 있으며 젊은 세대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로컬푸드 선호도가 매우 좋은 지역이다.

군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달간 시범운영 후 오는 10월 13일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개월간 운영해온 임시 상설직매장은 완공된 직매장으로 통합됐다. 직매장에는 270여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농수산물 및 정육, 가공식품 등 35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신규 출하자 모집과 생산자에 대한 출하방법, 출하 규칙 등을 교육하고, 출하농가 품목 정비 및 소비자 홍보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 500여 농가까지 확대하고, 품목 또한 500여 상품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해남 2030 푸드플랜’을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 농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추진해오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푸드플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가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와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진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혈압 측정기 등 제공

진도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AI-IoT 기반(인공지능-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개인별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존의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상담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군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고혈압, 당

뇨, 비만 등 만성질환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순위로 모집해 오는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에게는 사전 건강평가 후 개인의 질환 여부에 따라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AI 스피커 등 다양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보건소 전문인력과 공유해 방문간호와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이 비대면 방식

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상담,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은 이달말까지 대상자 선정 후 10월부터 질환관리,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등 맞춤형 건강관리와 건강 컨설팅으로 어르신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AI-Io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태 기자

목포문학박람회, 시민주도 프로그램 눈길

삼학도 크루즈선 선상 시낭송회 등 진행

‘2021 목포문학박람회’가 시민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문학을 주제로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문학박람회는 시민이 관람객이 아닌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예향 목포 시민 시낭송대회’다. 목포문인협회가 시낭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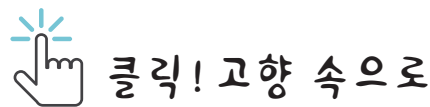
대회는 목포 지역 최고의 시낭송가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서툰 아마추어 시낭송가로 시작하지만 대회를 통해 목포 최고의 시낭송가로 거듭날 수 있는 시민 시낭송가 육성 프로그램이다.

또 100년 전 극작가 김우진이 살았던 동네의 골목길에서는 주민이 배우로 연극 무대에 선다. 김우진의 대표작품인 ‘이영녀’가 그것으로 목원동 골목길 문학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한다. /목포=박승경 기자

강진 명품청자 할인 판매

강진군은 제49회 청자축제 온라인 개최를 맞아해 10월 한 달 동안 강진 명품청자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진 만큼 10월 한달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강진청자쇼핑몰 및 강진청자 판매장에서 한시적으로 40% 할인 판매하며 5회에 걸쳐 ‘네이버 쇼핑 라이브 특가 생방송’으로도 진행해 온라인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온비드 명품청자 토요경매가 전국적인 관심에 힘입어 1회 3점 관요 경매를 축제기간 2회에 걸쳐 30점 경매로 실시한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완도해경 323합, 적극행정 우수부서 선정

완도해양경찰서는 소속 경비함정 323합이 해양경찰청 주관 적극행정 단체 수상사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경비함정의 해양오염방제 작업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는데, 323합은 기존 장비를 활용해 경비함정 해양오염 방제 체계를 개선해 장의적 업무수행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장비 개선을 통해 비효율

성을 극복하고 단정 활용도를 향상(단정 단독 임무수행 가능)시켜 대·내외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개선 장비의 높은 효율성을 검증받은 만큼 해양오염 발생 시 적극 운용해 방제 작업에 앞장 서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영암, 자살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 5일시장을 방문한 지역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만남 제한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개인과 집단의 스트레스가 증가해

정신건강의 보호 증진이 필요함에 따라, 많은 인파가 모이는 시장을 찾아 진행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의 자살예방 사업을 홍보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자살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농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신안농협은 최근 암태파출소와 함께 대대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대표통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신안농협은 본점과 지점에 대표통장 근절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문을 내걸고,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부했다.

특히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

해 개인정보와 송금을 요구하거나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할 것을 적극 안내했다.

이동진 조합장은 “농협의 주 고객인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